아름답고 한적한 전남 해변서 무더위 '훌훌'

7월 전남도 추천 관광지

여수 웅천 친수공원·무안 톱머리
영광 가마미·진도 가계 해수욕장
갯장어·낙지·보리굴비 등 별미도

전남도가 아름다운 풍광 속에 시원한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여수 웅천친수공원해수욕장, 무안 톱머리해수욕장, 영광 가마미해수욕장, 진도 가계해수욕장 등 도내 해수욕장 4곳을 7월 추천 관광지로 선정했다. 왼쪽부터 여수 웅천친수공원해수욕장과 영광 가마미해수욕장.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7월 추천 관광지로 풍광이 아름답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한적하게 시원한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여수 웅천친수공원해수욕장, 무안 톱머리해수욕장, 영광 가마미해수욕장, 진도 가계해수욕장 등 4곳을 선정했다.

여수 웅천친수공원해수욕장은 도심에서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해변이다. 깨끗한 모래사장과 샤워장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졌다. 여름철 패들보드, 카약, 윈드서핑, 스노클링 등 다양한 해양레저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캠핑장도 이용할 수 있다.

해변 옆 진섬다리를 건너 예술의 섬 장도까지 도보로 이동해 산책로를 걸으며 예술작품도 감상할 수 있어 자연과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여름 여행의 명소다. 개장일은 8월17일까지다.

여수의 해풍을 맞고 자란 갓김치와 정약전의 자산어보에도 소개된 갯장어 요리로 몸보신과 함께 무더위로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을 수 있다.

무안 톱머리해수욕장은 서남해안을 따라 펼쳐진 광활한 갯벌과 백사장이 아름다운 해수욕장이다. 얕고 완만한 수심 덕분에 어린 아이도 물놀이를 즐기기에 좋다. 해송 숲 사이에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데크를 이용해 캠핑과 함께 여유롭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

톱머리해수욕장의 상징인 비행기 모양의 등대와 어우러지는 낙조 풍경과 야간경관 조명은 낭만적 분위기를 연출해 낮부터 밤까지 즐길거리가 풍성하다. 개장일은 18일부터 8월17일까지다.

무안 낙지골목에서는 람사르습지 등록 청정 갯벌에서 잡은 세발낙지를 재료로 만든 낙지연포탕, 낙지탕탕이, 갈낙탕 등 다양한 낙지 요리를 맛보며 더위로 지친 기력을 보충할 수 있다.

영광 가마미해수욕장은 반달 모양의 넓은 백사장 뒤편에 2천여그루의 곰솔이 해안을 따라 숲을 이루고 있다. 바닷물이 맑고 모래가 고와 모래찜질하기에 좋다. 야영장과 어린이 물놀이장(아쿠아월드), 포토존이 조성돼 다채롭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

올망졸망 떠 있는 섬들을 배경으로 칠산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환상적 서해 낙조는 빼놓을 수 없는 영광의 풍광 명소다. 개장일은 18일부터 8월24일까지다.

영광 법성포 굴비거리에는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이 즐비해 있다. 한여름에 가장 맛있다는 쫀득하고 매콤한 덕자찜, 녹차 냉수에 밥을 말아 굴비를 올려먹는 보리굴비 정식을 맛보며 무더운 더위를 날려 보낼 수 있다.

진도 가계해수욕장은 현대판 모세의 기적 신비의 바닷길로 유명한 회동마을에 자리잡고 있어 한반도 남쪽 바다의 풍광을 만끽할 수 있다. 백사장 길이만 약 3㎞에 달하는 넓은 해변이며 뒤쪽엔 소나무와 잔디가 있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며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

넓은 주차장과 샤워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매년 관광객이 찾는 해수욕 명소다. 요트·카약 등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도 즐길 수 있다. 개장일은 18일부터 8월17일까지다.

진도는 전복과 홍합, 바지락 등 신선한 해산물이 풍부하다. 시원하고 얼큰한 해물탕과 영양 가득한 전복죽은 여름철 원기 회복 음식으로 제격이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긴 해안선과 수많은 섬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해양 경관을 자랑하는 지역"이라며 "경관이 아름다운 해변에서 해수욕도 즐기고 여름 별미를 맛보며 진정한 휴가를 만끽하길 바란다"고 추천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 세계양궁대회 대비 다중이용시설 위생 강화

양궁대회 시설·대형건물 등 183곳
9월까지 '레지오넬라균' 집중 검사

광주시가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여름철 레지오넬라증 감염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9월까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환경검사'를 집중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선제 조치로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리는 '광주2025현대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관련 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검사 대상은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경기장과 숙박시설 등 관련 시설 16개소를 포함해 종합병원, 노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고위험시설, 백화점·대형건물·목욕탕 등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등으로 총 183개소다.

레지오넬라증은 레지오넬라균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제3급 급성 호흡기감염병으로 오염된 물에서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이 작은 물방울 입자 형태로 공기 중으로 나와 호흡기를 통해 흡입돼 폐렴과 독감을 일으킨다.

대형 건물의 냉각탑·급수시설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냉방기 사용이 급증하는 하절기에 환자 발생이 집중된다.

건강한 사람은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되더라도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다가 특별한 치료 없이 일주일 내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50세 이상·만성질환자·면역저하자 등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의 경우 감염 후 숨가쁨 증상과 함께 호흡 곤란 등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검사는 보건소에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환경 검체를 채취하고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윤선 공공보건의료과장은 "레지오넬라증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비교적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감염병이지만 고위험군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이라며 "냉각탑과 급수시설의 주기적인 청소와 소독 등 철저한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레지오넬라 오염도 조사 결과, 총 643건 중 58건(9.0%)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 주요 발생 시설은 냉각탑(20.8%), 온수공급시설(11.9%) 등이다. /변은진 기자

전남도, 지역 소상공인 정책 개발 포럼

전남도는 지난 9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겪는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다양한 정책 개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소상공인 정책 개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소상공인, 전남도의회,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개발 원탁토론회, 전남 소상공인 청년위원회 발대식, 소상공인 정책설명회, 초청 강의 등으로 진행됐다.

포럼에선 전남도소상공인연합회가 오는 10월1일부터 개막하는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에 지역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사진〉

전남도는 앞으로도 소상공인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 정책 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시원 기자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만원 한도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포함)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자연재해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포함)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상해로 화상(심재성 2도)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수술1회당)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상해 사망(교통상해사고 제외)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사고 제외)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만원 한도
상해 사고진단위로금(교통상해사고 제외)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만 65세 이상만 담보)	10만원